

간절한 기도·방역 노심초사... 1년 같았던 '100일'

학부모들의 '코로나 수능 100일' 뒷바라지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광주·전남 수능 지원자는 3만 58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응시자가 줄었다. 그렇다고 수험생 부담감이 줄어들 리 없다. 수험생만 그렇까. 어머니의 마음은 수험생보다 더 간절하다.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마음 졸이며 버텨낸 지내에 한 해였다. 수시로 바뀌는 학사 일정에 안절부절했고 '결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래도 자식을 향한 모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실수없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100일 전부터 기도해온 어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D-100

코로나 확산세... 학부모 전전긍긍

◇수능 D-100일, 코로나 '2차 유행' 어떡해=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수능 100일(8월 25일). 고교 3학년이 다니는 딸을 둔 최주(가명) 엄마는 불안에 떨었다. 사흘 전인 8월 22

일부터 26일까지 무려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이나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13.2명에 달하는 '2차 유행' 이었고 26일에는 무려 39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일 전인 8월 1일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명에 그쳤다.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수능 시험일을 연기한 뒤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무섭게 확산하면서 최주 엄마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에 걸릴까 독서실, 스테디카페도 가지 못

코로나 재확산에 불안감 가중
아이 짜증 늘어 공부 집중 못해
수험생 안전·건강에 온 신경 집중

집에 기도실 꾸린 엄마
아빠는 칼퇴근 '바른 생활' 모드
잡은 재난문자에 불안해 할라
아이 부담감 지워주기 안간힘

하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이는 학사일정이 자꾸 바뀐다고 불안해하는데 해줄 건 없고 안타까웠죠."

코로나로 종교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절·성당·교회 등을 찾아 기도하는 엄마들도 갈 데를 잃었다. 임시 제도가 바뀌고 코로나가 확산해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일. 엄마들은 집에 기도실을 꾸렸다. 집에서 수능기도문을 받아와 집 안에서 108배를 올리

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는 민정(가명) 엄마는 화상으로 주일 예배마다 자녀의 고독점을 염원했다.

"기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아 부정이 탈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재수하는 아들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간절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 괜히 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해줄 게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재수생 아들을 둔 민수(가명) 엄마 얘기다.

D-50

코로나 주춤...바른생활 부모가 되다

◇D-50, 9월 모-평 결과, 우리 자녀 어디갈까=수능 50일을 남겨둔 10월 14일, '수능 가능자'로 꼽히는 9월 모-평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와 수학, 영어가 다소 어려웠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현역인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서

불리한데, 시험도 어려워 재수생에 밀릴까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요."

고3 아들 현준(가명) 엄마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시험이 어렵다며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어려운 수능일 때는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죠. 내 자녀 애길 다른 엄마한테 할 수도 없고, '너 괜찮냐'라고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신경쓰였는지 혼자서 마음 졸였거든요."

정현(가명) 엄마는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을 끊고 과외로 돌렸다"고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줄었는데 학원비는 더 들었다고 했다.

엄마들은 "커피숍도 못가지, 사우나도 못가지, 저녁도 집에서만 먹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한테 영향이 미칠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

D-30

새벽 기도...영양제 챙겨 먹이기

◇D-30, 새벽 기상=11월 3일, 문주(가명) 엄마는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졌다.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수능날에 맞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조언에 4시 30분에 일어났다.

부정이라도 탈까 새벽 기도도 빠질 수 없어 더 빨리 일어나 준비해야 아이 아침을 챙겨줄 수 있었다고 한다.

"밥맛 없다고 그냥 일어서는 아이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려고 엘리베이터까지 매일 쫓아갔어요."

이 때부터 건강 관리에도 신경쓰기 시작했다. 비타민, 오메가3, 마그네슘 등 영양제를 구매했다. 혹시나 환절기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생강차, 홍삼, 경옥고도 직접 주문했다.

문주 엄마는 "비타민은 기본인데 아이가 소화 안된다고 해 유산균도 만들어 먹였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눈꺼풀과 엉덩이가 떨린다고 해 마그네슘 캡슐을 사다 매일 먹였다"고 했다.



지난 10월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

D-10

공부 방해될라 '조심조심'

◇D-10, 까치발을 들었다=코로나 확산보다 무서운 게 아이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울려대는 재난 문자에 불안감을 지우기 어려웠다.

수현(가명) 엄마는 "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재난문자 때문에 더 불안해했다"면서 "수능에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집에서는 발걸음을 올리고 다녔고 아이 공부방 앞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밖에도 못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방해가 안되려면 TV안 본 지 오래됐죠. 그래도 계속 책상에만 앉아있는 아들 늘 보는 게 얼마나 안쓰럽던지 몰라요.", "우리 딸은 신경이 예민해 식사도 식판에 따로 갖다 방 앞에 놓아줬어요."

수능 당일, 이들 학부모들은 고사장에 자녀들을 들여보낸 뒤 최선을 다한 자녀들의 좋은 소식을 기원하며 절·교회·성당을 찾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달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를 찾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합격을 기원하는 팔찌와 떡을 받아가고 있다.

광주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광주 남구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왕성한 신체활동을 위해 집콕 홈 트레이닝 등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할기차게 추진해 온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구는 올 한해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내 공간에서의 신체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운동량이 부족한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보여 운동할 수 있도록 총 12회 분량의 '집콕 홈 트레이닝' 영상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한 필라테스 및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에 주력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해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짬짬이 체조 및 스트레칭 매뉴얼을 통해 영유아의 신체 활동을 증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조선대병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 출산

아기는 음성 판정

조선대병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임신부(39주)의 분만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확진자 출산이 처음인 조선대병원은 수술과 관련 산모의 제왕절개수술을 위해 수술방(15개) 모두를 비우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시로 대응회의를 했고 감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력을 수술실에 투입했으며,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해 지난달 29일 3.88kg의 건강한 남아가 태어났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산모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수직감염을 우려했으나 3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와 3일 퇴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술 후에도 수술방 모두를 4시간동안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다음 수술 환자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수술을 집도한 유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많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아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가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북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순찰기동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총 25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